

시진핑 우크라 평화 중재안에...푸틴 “논의할 것”

중·러 크렘린궁서 일대일 정상회담
직접 대화 재개·휴전 모색 등 포함
백악관 “러시아 철군이 우선” 일축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전 평화 중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종전 구상이 주로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미국은 러시아의 철군 없이는 이번 중·러 정상회담으로 발전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0일(현지시간)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민 방문 첫날인 이날 크렘린에서 진행된 일대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당

신의 제안을 주의 깊게 검토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계획을 존중하며 이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제안’은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리킨다. 중국은 12개 항으로 구성된 이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대화 재개와 휴전 모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금수 등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 문서에서 각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전성 보장, 유엔 헌장 취지 준수, 냉전 사고 버리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등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이 ‘우크라이나 해법’이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친(親) 러시아적이라며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철군 없는 평화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 두는 휴전 요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뒤 유리한 시점에 전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모든 국가의 영토 및 주권 존중이 핵심 요점으로 우리는 시 주석이 이 요점을 옹호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유엔 헌장에 따라 러시아 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직접 압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U,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 추가 지원

유럽연합(EU) 외교·국방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12개월에 걸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100만 발은 작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약 35만 발)의 3배에 육박한다.

탄약 지원을 위한 자금은 EU 정규예산이 아닌 별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서 총 20억 유로(약 2조8000억 원)가 활용된다. 이 가운데 10억 유로는 기존 탄약 재고나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즉각 전달하는 회원국에, 나머지 10억 유로는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회원국에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EPF로 구매 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 대금의 50~60%가량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보상 비율은 추가 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우선 각국의 기존 탄약 재고 및 계약 체결 물량을 5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 내용은 오는 23~24일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EU 합의가 ‘전쟁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신속한 탄약 전달과 지속적인 공동 구매는 정확히 지금 시점에 필요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찾은 미 해군 강습상륙함 2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아메리카(LHA 6)의 모습. 소키 스나이더(대령) 아메리카함 함장은 “미 해군 함정들은 공해상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국가는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갖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일보,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 국방일보는 6·25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조사단과 함께 ‘무공훈장 찾아주기 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명단에 있는 수훈 당사자이거나 수훈자를 아는 분은 조사단 공식 전화번호 1661-7625로 연락하시면 무공훈장 수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0226498	손원철	밀양시	0219184	박석우	밀양시	10495	이도현	밀양시	8808049	김진식	제천시	2604347	표순반	제천시	0252207	홍성균	제천시
0617613	김학중		0211404	한주윤		0632587	김구영		8808049	김진식		2604132	이중학		119007	석기세	
2900670	이세훈		0211778	손기을		0249091	백규현		5703938	임병식		2604120	박승철		0386609	홍완기	
K1130461	류복만		0702124	최기선		2700125	갑소용		5702100	윤홍근		1801015	최용운		0802564	함현일	
K1124376	이상순		0733988	손덕구		9802806	이전기		5701519	김태수		2801974	김용만		1704907	김상윤	
K1125290	김입영		119175	서철용		0734645	손경현		5601550	원현식		117684	김한상		1704825	김덕환	
K1124267	안중개		0652652	이성걸		K1133677	김호순		0801934	이노실		0101002	윤상호		1704180	황치환	
K1125138	이기준		0102663	김상수		0385206	노태법		0797682	전명삼		K1136507	서학이		1704151	최춘식	
K1130387	전용문		8810932	우재만		0739036	문영진		0760060	원용안		9517061	전영식		1704145	우봉락	
203231	박주열		9213895	우결현		0209356	로용출		0756401	원현성		9398635	라일용		1702488	장희준	
1500518	김태곤		9901128	배금도		0500095	윤소용		0250310	김광주		9398565	정월병		1702373	이희정	
0500128	임성식		K1133572	박종선		0211312	박판수		0745126	박병규		9398400	이병규		1702019	이해봉	
5501674	최정환		0500095	윤소용		0734685	김삼조		0745038	윤길현		9365629	한학열		1700013	권갑출	
K1133711	장홍수		6300163	서성수		0213620	김영득		0738206	임만수		9338474	김연매		1207321	이석주	
0550409	장태신		0738170	하소술		K1109227	김도원		0713507	김창기		9333789	장사술		K1148484	김시목	
0389377	이성화		K1133832	김역수		0211299	박유동		1704374	권혁봉		9333771	이원길		K1115570	김형모	
0379153	박진완		0202699	손기정		0500337	이경범		0699473	조시창		8812173	이강신		K1101750	정기원	
0249345	김해룡		110671	이은수		2504582	이기창		0760379	조삼봉		8810032	김창기		2604543	최현철	
0249347	민오식		14676	박명경		0737013	김상백		0670657	이준구		8809886	이종만		2604535	권규성	
9360532	조복복		0712704	최인수		0701578	정득암		0671283	김정식		8808216	조정희		2604534	배동근	